

마운드·수비 정상화로 1위다운 품격을 보여라



1위 KIA가 5일 LG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이번 한 주 한화, 삼성을 상대한다. KIA 김기태 감독은 지난 3일 넥센전 끝내기 패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마운드·수비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 <KIA 타이거즈 제공>

T 타이거즈 전망대

3이닝 세이브·선발진 불펜 투입 등 변칙 운영 '발목' 팻딘, 하루 앞당겨 오늘 LG전 선발...내일은 심동섭 LG·한화·삼성 등 하위팀과 잇단 대결 그나마 위안

■ 2017 KBO리그 팀순위 <4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KIA	121	75	1	45	0.625	0.0
2	두산	124	71	3	50	0.587	4.5
3	NC	126	71	1	54	0.568	6.5
4	롯데	127	69	2	56	0.552	8.5
5	넥센	127	66	1	60	0.524	12.0
6	SK	128	65	1	62	0.512	13.5
7	LG	120	59	2	59	0.500	15.0
8	한화	122	51	1	70	0.421	24.5
9	삼성	126	47	4	75	0.385	29.0
10	kt	123	40	0	83	0.325	36.5

‘호랑이 군단’이 실패에서 우승의 답을 찾아야 한다. 안도의 한숨과 좌절의 탄식이 교차한 KIA 타이거즈의 지난 한 주였다. 두산 베어스와의 주중 홈경기가 끝난 뒤에는 우승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다. KIA는 걱정 많았던 주중 2연전에서 니퍼트와 유희관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오면서 무섭게 쫓아오던 두산의 추격을 뿌리쳤다. 전반기 1위 질주를 이끌었던 타선이 다시 움직이며 재개된 승리 행진은 5연승까지 이어졌다. 선발진 공백 고민은 심동섭의 첫 선발승

으로 잠시 잊는 것 같았다. 하지만 3일 KIA는 6연승을 견어졌다. 6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9회말 7실점으로 넥센 히어로즈에 끝내기 패를 당하면서 5연승을 잊게 한 충격의 1패를 남겼다. 시즌 내내 매일 열 없이 운영되던 보직 파괴의 불펜이 다시 한번 폭발했다. 1주일 만에 마운드에 오른 한승혁이 위기를 맞아 심동섭, 박진태, 김진우가 잇달아 투입됐고 결과는 7실점 끝내기 패였다. 심동섭과 김진우는 지난 8월 30일 각각 1군과 2군에서 선발로 출격했다. 선발 역할을 한 지 4일 만에 마운드에 오른 심동

섭은 6일 LG 트윈스전 선발로도 준비하고 있었다. 김진우도 지난 2일 2군 선발 등판 뒤 3일 만에 1군에서 복귀 경기를 치렀고, 이날 연투에 나섰다. 완벽한 컨디션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3이닝 세이브, 선발진의 불펜 투입 등 불펜의 전문화와 가용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약점을 보여준 김기태 감독의 마운드 운영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는 경기였다. 이제 남은 경기는 23. 1위 행보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지적되어온 ‘마운드 정상화’를 위한 변화와 인내가 필요하다. 일단 새로운 한 주 첫 2연전인 LG 트윈스와의 원정경기를 잘 풀어야 한다. 마운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지난 주 심동섭이 깜짝 선발로 등판하면서 팻딘이 하루 밀어 마운드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팻딘이 하루 앞당겨 5일 선발로

나선다. 예고된 대로 심동섭이 6일 선발로 출격한 경우 불펜 운영은 승리로 가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심동섭이 지난 선발 등판에서는 5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선발 경험이 부족한 만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여기에 3일 불펜 등판에 따른 심신의 후유증도 간과할 수 없다. 그나마 하위권 팀들과 잇달아 만나는 게 위안이다. KIA는 7일 LG와의 원정 경기에 이어 안방으로 돌아와 8일 한화 이글스 그리고 9일 삼성 라이온즈와 상대한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도 KIA가 앞서있다. LG에 9승 4패를 기록한 KIA는 한화에는 8승 3패, 삼성에는 11승 3패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마운드 대참사’의 후유증 속 부상 악재가 겹쳤다. 타선 상승세를 이끌었

던 ‘툭타자’ 이명기가 발목 부상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다. 이명기는 지난 3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9회말 수비를 하다 팬스에 부딪히면서 왼 발목을 접질렸다. 고질적인 발목 통증에 시달려온 이명기는 병원 검진 결과 염좌 진단을 받으면서 당분간 재활에 집중하기로 했다. KIA는 대신 대수비 자원으로 이호신을 엔트리에 등록할 예정이다. 3일 대수비로 들어갔던 우익수 신종길의 아쉬운 수비로 불펜의 어깨가 무거워졌던 점을 생각하면 마운드 정상화와 함께 수비 안정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한 주다. KIA가 팬들의 원성을 샀던 3일 총격의 패배를 발판 삼아, 마운드를 중심으로 한 수비 강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궁 월드컵 파이널 2연패 기보배 11월 결혼 ‘결경사’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현대 양궁 월드컵 파이널에서 2연패를 달성한 기보배(광주광역시청)가 오는 11월 결혼한다. 기보배는 3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리커브 결승에서 러시아의 크세니아 페로바를 세트 스코어 7-1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기보배는 1세트를 28-28 동점으로 비긴 후 세트를 내리 10점 2개와 9점 1개 29점으로 처리하며 무난히 승리했다. 대회 2연패이자 통산 세 번째 월드컵 파이널 제패다. 기보배는 지난해 덴마크 옌센에서 열린 월드컵 파이널 대회에서 최미선을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기보배는 금메달을 딴 후에 세계양궁연맹(World Archery)과의 인터뷰에서 “11월에 결혼한다”며 “결혼할 (예비) 남편과 어머니가 중요한 대회를 응원해 주려 오셨다”고 말했다. 기보배는 오는 11월 18일 식을 올리며, 상대는 언론계 종사자로 알려졌다. 이번 우승으로 파이널 대회 상금 2만 스위스프랑(약 2400만원)도 결혼 선물로 쟁길 수 있게 됐다. 기보배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우승하게 돼 기쁘고, 특히 가족들이 함께 응원해줬는데 선물로 우승을 드릴 수 있어 너무나 기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2년 우승까지 월드컵 파이널을 세 번 제패하게 된 기보배는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서 최대한 마음을 비우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로마에 함께 가 힘을 넣어준 박재순 광주시청 감독에 대해서 기보배는 “선수는 많은 관중이 있는 무대에 서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감독님이 침착하게 하라고 이끌어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남자부에서는 김우진이 결승전에서 ‘한국 선수 길라’로 불리는 미국의 브래디 엘리슨을 세트 스코어 6-0으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김우진은 2012년에도 엘리슨을 점전 끝에 꺾어 월드컵 파이널 챔피언이 된 바 있다. 한국 남자 선수가 월드컵 파이널을 제패한 것은 2013년 오진혁에 이어 4년 만이다. 임동현(청주시청)은 준결승에서 엘리슨에게 발목을 잡힌 후 동메달 결정전에서 네덜란드의 스테브 위즐러를 꺾었다. 김우진은 세계 랭킹 1위와 개최국이 맞붙는 리커브 혼성 결승에서도 장제진과 짝을 지어 이탈리아를 5-1로 가볍게 제압하면서 대회 2관왕이 됐다. 이로써 이번 대회 리커브 종목에 걸린 금메달 3개를 모두 한국 선수들이 가져왔다. /연합뉴스

경찰 야구단·상무 퓨처스리그 우승

5개월 대장정 마무리

2017 프로야구 KBO 퓨처스리그(2군)가 5개월간의 대장정을 끝냈다. 지난 4월 4일 개막한 퓨처스리그가 지난 3일 합평(kt-KIA)과 서산(삼성-한화) 경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2017 퓨처스리그는 12개 팀이 6개 팀씩 각각 북부(경찰, SK, 화성, 고양, LG, 두산)와 남부(KIA, 상무, kt, 한화, 삼성, 롯데) 2개 리그로 나뉘어 총 562경기를 치렀다. 올 시즌에도 경찰 야구단과 상무의 독무대였다. 북부리그에서는 경찰 야구단이 55승 34패(승률 0.618)로 7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남부리그에서는 상무 야구단이 62승 28패 4무(승률 0.689)로 6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KIA는 48승 5무 40패(승률 0.545)로 남부리그 2위에 자리했다. 개인 타이틀 부문도 우승팀인 경찰과 상무가 휩쓸었다. 투수 부문에서는 경찰 이대은이 2.93의 평균자책점으로 1위에 올랐고, 경찰 김동준은 10승으로 최다승을 기록했다. 상무 임지섭은 평균자책점(2.68)과 승리(11승) 부문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타격에서는 역대급 기록들이 쏟아졌다. 북부리그 경찰 윤대영(24홈런 98타점)과 남부리그 상무 문상철(36홈런 101타점)은 각각 홈런과 타점 부문 2관왕에 올랐

다. 특히 문상철은 36개의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종전 최다 홈런이었던 2008년 박병호(상무), 2009년 조영훈(경찰), 2010년 최주환(상무)의 24홈런을 넘어 퓨처스리그 역대 최초로 30홈런 고지를 돌파했다. 또 101타점으로 최다 타점 기록인 2010년 김재환(상무)의 101타점과 타이틀을 이루며, 퓨처스리그 최초로 ‘30홈런-100타점’을 달성했다. 경찰 홍장기는 0.401의 타율을 찍으며 1999년 LG 정현택(0.418)·이동욱(0.415), 2006년 상무 이영수(0.401), 2008년 LG 이병규(0.426), 2011년 삼성 김정혁(0.418), 2015년 고양 김태진(0.402)에 이어 역대 7번째 4할 타자가 됐다. 한편 KBO는 퓨처스리그 활성화를 위해 지난 시즌 최초로 시행된 ‘먼데이 나이트 베이시볼’을 올 시즌에도 편성했다. 퓨처스리그 중계는 지난 시즌 22경기에서 45경기로 늘었다. 퓨처스리그 최초로 서머리그도 도입됐다. 혹서기 기간 총 72경기를 KBO 리그와 같이 야간(평일 오후 6시 30분, 주말 오후 6시)에 편성해 선수단 보호와 KBO 리그 적응력 향상을 꾀했다. 또 서머리그 중 23경기는 연고 도시 외 지역(춘천 11경기, 청주 8경기, 군산 4경기)에서 개최해 팬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장애인체육회 양궁, 전국체전 사전경기 종합우승

광주장애인체육회 양궁선수단이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사전경기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장애인양궁선수단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충북 청주 김수녕양궁장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사전경기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8개, 동메달 3개로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양궁종목은 12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세계양궁 선수권대회와 일정이 중복돼 사전경기로 진행됐다. 광주시청 실업팀 장애인양궁팀이 주축이 된 광주장애인양궁팀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김란숙, 조장문, 정진영, 김옥금 등 14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지난 3일까지 금5, 은7, 동2개로 5517점

을 획득한 광주장애인양궁선수단은 대회 마지막날인 4일 조장문과 김란숙이 여자 리커브 개인전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냈고, 혼성 컴파운드에 출전한 김옥금과 여자 컴파운드에 출전한 정진영이 금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해 종합득점 6995점으로 개최도시 충북을 1199점을 앞서며 종합순위 1위를 달성했다. 조장문은 이 대회 여자리커브 경기 랭킹라운드1, 랭킹라운드 종합, 혼성2인조 우승에 이어 4번째 금메달을 작성해 대회 첫 4관왕의 영광을 안았다. 광주장애인체육회 이명자 상임부회장은 “오는 15일에 개막하는 전국체전에도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이 선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 유도 세계선수권 혼성 동메달

한국 유도가 2017 세계선수권대회 혼성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한국 남녀 대표팀은 4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치러진 마지막 날 혼성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캐나다를 5-1로 물리치고 동메달을 따냈다. 지난 6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를 통해 2020년 도쿄 올림픽부터

유도의 세부 종목으로 채택된 혼성 단체전은 올해 세계선수권대회를 통해 처음 선을 보았다. 남녀 선수 6명(남자 3명·여자 3명)이 팀을 이뤄 출전하는 혼성 단체전은 여자부 57kg급, 70kg급, 70kg 이상급 등 3체급과 남자부 73kg급, 90kg급, 90kg 이상급 등 3체급을 합쳐 총 6체급에서 경쟁하는 국가

대항전이다. 1회전에서 터키를 6-0으로 물리친 한국은 2회전에서 만난 영국을 4-2로 따돌렸고, 3회전 상대인 프랑스도 4-2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한국은 준결승에서 일본에 1-5로 완패한 뒤 동메달 결정전에서 캐나다를 만나 5-1로 이기면서 동메달을 완성했다. 한편, 한국을 준결승에서 꺾고 결승에 나선 일본은 브라질을 6-0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김현수 2경기 연속 안타

김현수(필라델피아 필리스)가 2경기 연속 안타를 쳤다. 김현수는 4일 미국프로야구 2017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 방글경기에서 6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 2삼진을 기록했다. 전날 외야수 페드로 플로리만의 갑작스러운 부상 탓에 교체 출전했던 김현수는 이날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